스카우트 대원들 '대이동' … 아쉬워하는 지역 주민들

"바람도 없어 야속… 어른이 미안"

새만금 전망대, 지역 주민들로 북적여
"태풍 온다니 어쩔 수 없지만 아쉬워
전북도 잘못했지만 정부도 책임져야"

"우리는 더워 죽어도 괜찮으니 저 어린것들 위해서라도 바람이 좀 불어주면 쓰겠다는 마음이었어. 꿈쩍도 않는 게 야속하더라."

부안 토박이라는 김모(80)씨는 8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전망대를 찾아 텐트 철거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새만금 영지를 내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어린애들이 더위다 뭐다 해서 적응이 힘들었다니 어른으로서 맘이 안 좋더라"며 "일하는 식당에 찾아오는 친구들에겐 물 한 컵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예정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니 대접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출발부터 기록적 폭염과 위생·보건 문제로 삐걱댔으나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소식에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하자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모든 탓을 전북도 탓으로 돌린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께 새만금 전망대는 40여명의 지역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영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주민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주변을 지나는 차들은 창문을 내리고 속도를 줄인 뒤, 영지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을 겨냥해 찰옥수수와 얼음물을 파는 상인들도 등장했다.

어머니 김씨와 함께 쉼터를 찾은 김모(52)씨도 조기 철수 소식에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김씨는 "태풍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지만, 며칠 안 남았는데 정해진 일정을 다 하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근 식당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기대가 컸다"며 "대회 초반 지원 부족 등의 소식을 접하며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얼음물을 준비해 가져다주기도 했다. 좋은 기억이 조금이나마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도에만 책임을 돌린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모(70)씨는 "전북도민으로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창피 그 자체였다"면서도 "많은 인원이 전북을 떠난다니 속상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잘못을 전북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께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 총 1014대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했다. 새만금 야영지를 떠난 대원들은 수도권과 전북, 충남 등으로 이동했다. 경찰 헬기 4대와 순찰차 273대가 이들을 호위했다.

/뉴시스

8일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에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 버스 탑승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전날인 지난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화된 도립미술관 작품수집 절차 일원화

이명연 도의원 발의 전부개정 조례 제정
무료관람대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추가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제정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는 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절차를 일원화하고 무료관람대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추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도립미술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립미술관의 작품수집절차는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구입을 포함한 작품수집절차는 일차적으로 도립미술관 관장과 내부 학예사가 참여하는 작품추천회를 거쳐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작품추천회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어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명연 의원은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제정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상에는 작품수집절차에 관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조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현행 시행규칙의 위법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이러한 위법성 우려를 해소하고 작품수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립미술관의 작품 수집절차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끝으로 이명연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작품 구입은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재물을 취득하는 주요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읍지역 농업인단체·지난 5일 고창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정기국회 국감·법안 처리 반영 사항 협의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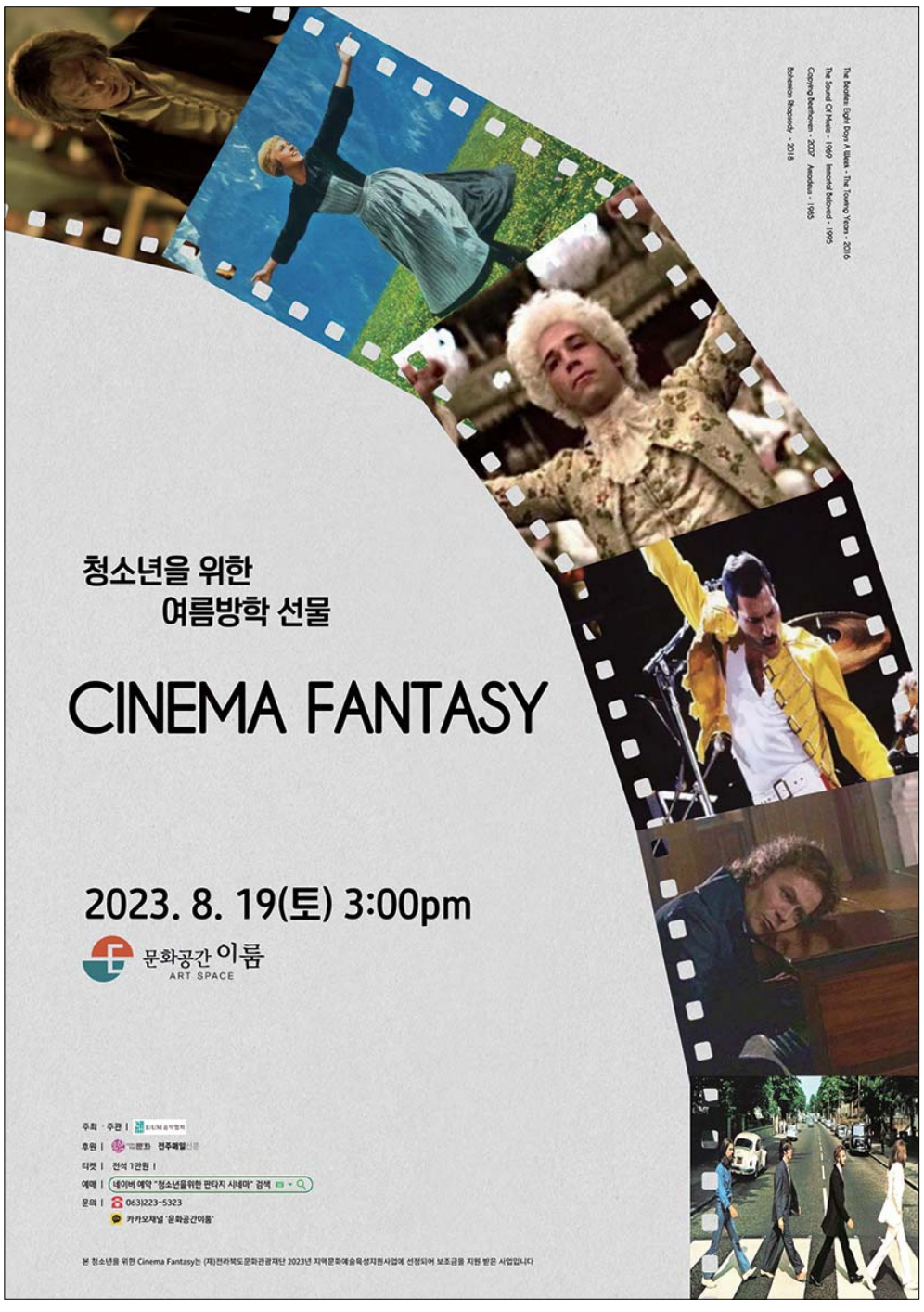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제도개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법안·예산 처리에 반영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달 31일 정읍시 농민단체연합 회장단 과 이달 5일은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 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폐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가을까지 풀 작업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보험 현장 실사 과정에서 실제 생산보다 필지별 낮은 생산량을 책정하는 문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해 손해를 본다는 지적 등 "농작물 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어, 이달 5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2~3년 가격 하락 이후 모처럼 가격이 상승 되어 그 동안의 손실 보전기회가 와도 하락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농작물가격이 인상되었다면서 수입품이나 비축물을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손해를 보는 계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현안' 지원요청, △연명으로된 문중 토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와 서류 개선, △쌀값 정상화에 따른 정부양곡 방출 우려, △보험 수준의 최저가 보장제 도입 검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책정 제도 도입, △필수 농자재(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농업용 전기) 지원 표준조례 개정 지원요청 등이 논의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우리 터전인 농촌을 지키고 계신 농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지적하고 건의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고 개선해,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농업·농촌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고창=김영식기자



"아쉬운 마음 커 끝까지 책임질 것"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잼버리 관련 입장 표명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에서의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결국은 태풍에 막혀 새만금에서 철수하고 전국으로 분산됐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에서 철수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는 김 지사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먹먹해 진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을 잡고 대회를 끝까지 챙기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은 전북에 머무르는 5000여 명의 10개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고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숙소부터 식사, 영외 활동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 과정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실 도민들을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면서도 "도민 여러분께 더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두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지원과 자원봉사를 펼치고 계신 도민들께 감사하다. 대학 기숙사 등을 흔쾌히 내어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잼버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뉴시스

강동화·문승우·윤정훈 도의원, 김운용 감사패

전북도의회 강동화(전주8)·문승우(군산4)·윤정훈(무주) 의원이 최근 무주에서 열린 '2023 무주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최재춘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총재이자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도록 한 고 김운용 총재의 업적을 기린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영국, 중국, 몽골 등 55개 나라에서 3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최재춘 위원장은 강동화 의원을 비롯한 문승우·윤정훈 의원이 평소 국기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더불어 '2023 무주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강동화 의원과 문승우 의원은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오랫동안 태권도 발전에 기여했다. 윤정훈 의원은 무주가 지역구다.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의 위상 강화와 태권시티 무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